

미국 엠파이어 제조업지수: 4 년만 최고치, 이면엔 원가 상승·전가 부진에 마진 압박

2026.08.17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8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가 20.6을 기록해 4년여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신규주문(17.3), 출하(11.7), 고용(9.3) 등 세부 지표도 모두 확장 영역에 머물러 있어 표면적으로는 지역 제조업 경기가 눈에 띄게 뜨거워진 모습이다. 다만 이 서베이는 뉴욕주 한 개 주의 소규모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수치 하나로 전국 제조업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라델피아 연은이나 전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PMI) 같은 다른 지표로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은 구성이다. 이번 달 세부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 항목은 수요 쪽이 아니라 공급·비용 쪽이다. 납품 지연 지수가 8포인트 뛰었고, 처리하지 못한 주문 잔고는 11포인트나 늘었으며, 원자재 등 투입 비용을 나타내는 지불가격지수는 58.6으로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이 실제로 받는 판매가격을 뜻하는 수취가격지수는 22.7로 오히려 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두 달 연속 이어지는 흐름이다. 즉 기업들이 원가는 더 비싸게 치르면서도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수치만 보면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진이 눌리는 확장 국면에 가깝다. 다만 신규주문과 출하는 이번 달 변화폭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헤드라인 상승분 중 얼마가 진짜 수요 증가이고 얼마가 병목으로 인한 왜곡인지는 정확히 나누기 어렵다.

정책 측면에서 이번 결과는 방향이 엇갈린다. 성장 지표만 놓고 보면 경기 확장이 이어지는 신호이지만, 비용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든 점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현재 국면에서는 긴축 기조를 더 오래 끌고 갈 근거를 보강하는 쪽으로 읽힌다. 특히 투입 비용 상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 몇 달째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한 달치 노이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 지표 자체는 표본이 작은 지역 서베이여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확률을 당장 크게 움직일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다음 달 실제 출하량이 쌓인 주문 잔고를 따라 늘어나는지, 아니면 잔고만 계속 쌓이는지를 봐야 진짜 수요 증가인지 병목 현상인지 가려낼 수 있다. 또한 지불가격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다시 꺾이는지를 지켜봐야 비용 재가속 판단을 더 확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연은이나 ISM 등 다른 제조업 지표와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이번 강세가 뉴욕주만의 일시적 현상인지, 전국적 흐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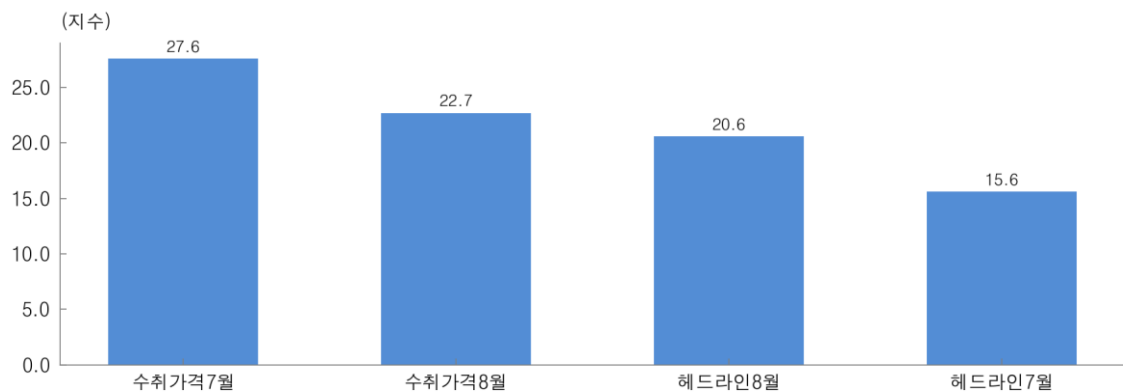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15 (이번)	8 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는 헤드라인 20.6 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하우스가 참고하는 7 월치 15.6 과 비교하면 상당폭 개선됐다. 다만 세부를 뜯어보면 이번 달 강세를 이끈 힘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수요 확대가 아니라 물류 지연과 투입비용 상승 같은 공급 측 부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기업이 매기는 원자재·부품가
2026-07-15	신규주문과 배송의 반동적 강세(6 월 약세 이후 기저효과)로 지수가 10 포인트 점프했으나, 공급 제약은 동시에 악화 중이고 가격 압력 둔화도 수요 신호보다는 원자재 약세를 반영하며, 글로벌 제조업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하는 와중에 뉴욕만 현재 강한 모순적 신호를 보내는 상황.
2026-06-15	5 월 강한 성장 이후 6 월 활동이 적당한 수준으로 둔화했으나 고용 확대와 가격 압력은 지속되며, 기업들의 향후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어 No-Landing 시나리오와 인플레이션 재가속 기조를 재확인한다.

EMPIRE 서베이 세부 지표 — 8 월 수치와 전월 대비 변화			
지표	8 월 수치	전월 대비 변화	맥락
헤드라인(일반경기)지수	20.6	+5 포인트	4 년여 만의 최고치, 확장 지속
지불가격지수	58.6	+6 포인트	입력비용 상승세 재가속
수취가격지수	22.7	-5 포인트	판매가 전가력 두 달 연속 둔화
미중쪽주문지수	15.5	+11 포인트	병목·수요 중 어느 쪽인지 미확정
납품소요기간지수	20.6	+8 포인트	납품 지연 심화
공급여건지수	-13.4	-3 포인트	공급 여건 악화 지속
신규주문지수	17.3	변화폭 미제공	확장 영역 유지
출하지수	11.7	변화폭 미제공	확장 영역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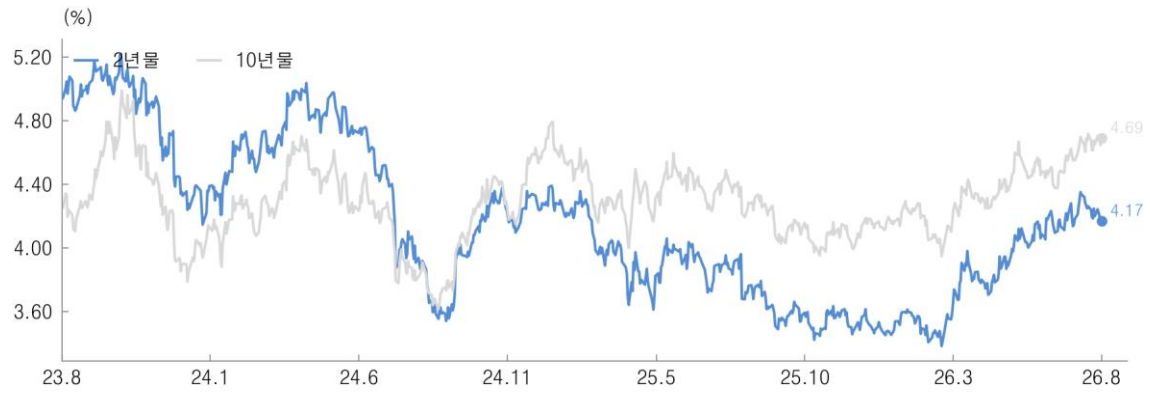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제조업 종합경기지수	20.6

헤드라인 상승 vs 수취가격 둔화 (7 월→8 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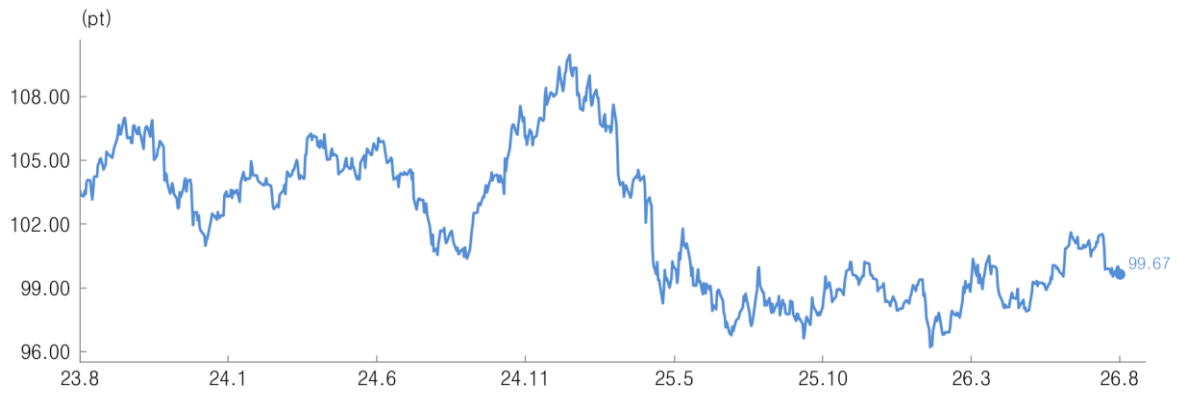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